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 전 도 연



“캐릭터로 무한변신 배우라서 행복해요”

‘1타 킬러’ 새 이미지 쾌감...“앞으로 뭘할까” 기대

“굉장히 쾌감이 컸죠. 액션이라든가 킬러로서의 모습을 전도연의 새로운 이미지로 받아들여 주시니까요.”

전도연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길복순'을 통해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길복순'에서 전설적인 킬러 역을 맡은 전도연은 "4개월간 액션 연습에 매진했다"며 "너무 힘들게 운동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식단 조절까지 병행했다"고 털어놨다.

이 영화는 밖에서는 잔혹한 킬러로, 집에서는 사춘기 딸을 둔 엄마로 이중생활을 이어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각본과 연출을 맡은 변성현 감독은 배우이자 엄마인 전도연의 모습에서 캐릭터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도연은 "평소에 일할 때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에 있을 때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면서 "극 중 복순과 대체로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엄마 노력으로 뭐가 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한참 성장하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면 말문을 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저는 대체로 아이한테 선택을 맡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라'인 거죠."

변 감독과의 작업에 대해서는 "배우를 가꿔놓고 찍는 작업방식이 새로워서 흥미로웠는데, 막상 촬영하니 엄청 답답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범위나 얼굴 각도까지 디렉션을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배우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가둬도 되는 거냐면서 싸우기도 했어요.(웃음) 그런데 그 연출 방식 덕분에 아주 작게라도 새로운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길복순'은 올해 베를린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첫선을 보였다. 당시 현지에서는 전도연의 색다른 모습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그는 "밀양'처럼 사실적인 연기뿐 아니라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반응이 뿌듯했다"고 전했다.

"밀양'으로 칸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난 뒤에 사람들이 제가 많은 작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작품성 있고 진지한 작품만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 작품들을 보고 '전도연이 이런 것도 해?' 하며 저러는 배우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당분간 액션영화에 도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

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액션 장르는 졸업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길복순'은 전도연의 첫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넷플릭스 작품은 극장 개봉 영화와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다"면서 "(시청 시간) 순위도 높아야 하고, 조회수도 신경 써야 해서 저도 계속 집에서 틀어놓고 스트리밍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시청자 반응은 뜨거운 편이다. 이 작품은 공개 이틀 만에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파트너'에서 넷플릭스 영화 부문 3위를 기록했고, 사흘 만에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 부문 시청 시간 정상을 올렸다.

전도연은 "너무 기쁘다"면서 "넷플릭스에서 '길복순'을 믿어준 만큼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근 TV 드라마 '일타스캔들'을 통해 사랑스러운 로맨스 연기를 선보인 데 이어 '길복순'으로도 다른 카리스마를 보여준 전도연은 "앞으로 어떤 작품이 들어올지 궁금하고 기대된다"고 했다.

"늘 기대받고 싶어요. 저는 이 일을 사랑하고 제일부처님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보다는 앞으로 뭘 할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

‘슈가+아이유’ 음원 강자의 만남

첫 솔로음반 선공개곡 ‘사람 Pt.2’ 발표...국내 음원 차트 정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아이유가 피쳐링으로 참여한 신곡 '사람 Pt.2'를 7일 발표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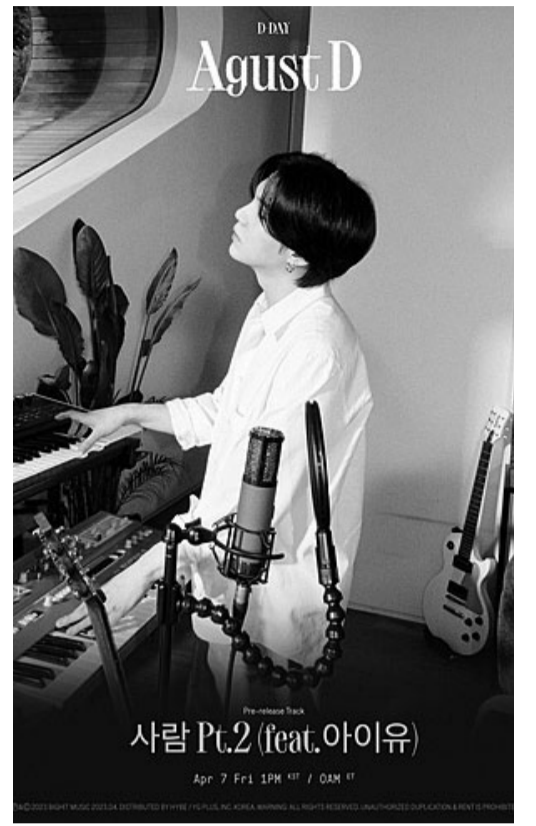
이 노래는 슈가가 어거스트 디(Agust D) 명의로 발표하는 첫 공식 솔로 음반 'D-데이'(D-DAY)의 선공개곡이다.

'사람 Pt.2'는 붐랩 리듬을 중심으로 한 팝 알앤비(R&B) 장르다. 아이유가 특유의 청아한 음색으로 피쳐링으로 참여해 곡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로 인한 감정을 슈가만의 감성으로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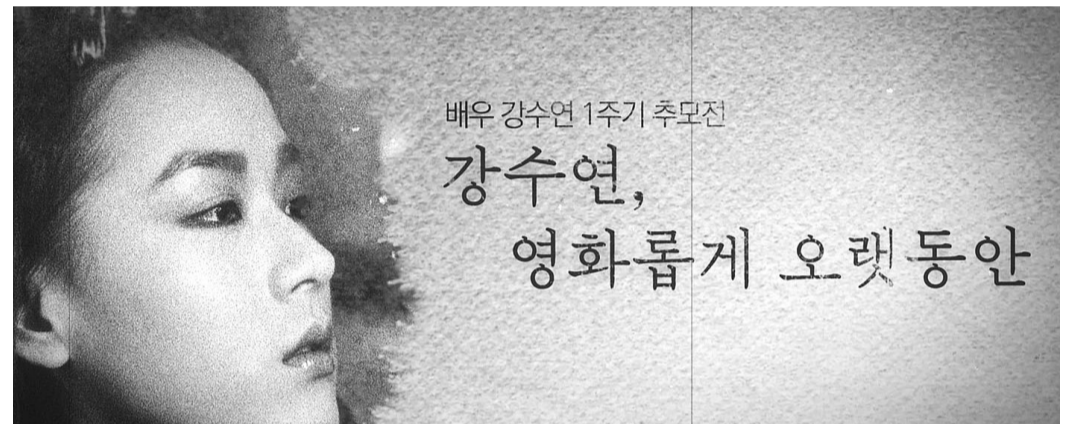
슈가는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서 음악 작업에 몰두하거나 사색에 잠겨 있는 등 일상을 보여줬다. 슈가는 특히 뮤직비디오 말미에서 "(이 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썼던 곡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해 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다"고 노래를 직접 설명했다.

슈가는 지난 2020년 아이유의 '에잇'에 프로듀싱과 피쳐링으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당시 '에잇'은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쓰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가요계 두 음원 강자의 만남인 만큼 이번 협업은 일찌감치 관심을 모았다. 노래 공개와 동시에 이



노래는 멜론 등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안착했다. /연합뉴스



배우 강수연 1주기 추모집  
강수연,  
영화롭게 오랫동안

강수연 1주기 추모집 이름은 '강수연'

글·손편지 2편 이달말 출간

배우 강수연의 1주기 추모집 이름이 '강수연'으로 확정됐다고 5일 '강수연 추모사업 추진위원회'가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강수연이라는 이름이 수식어가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크고 독보적이며, 배우의 타고난 성격도 꾸밈없고, 지나친 수사나 장식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배우 강수연 1주기 공식 추모집의 제목을 '강수연'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모집에는 두 편의 글과 손편지가 수록된다. 정성일 평론가는 고인의 생전 위상을 되새기는 에세이 겸 배후론을 집필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보건의사 안은영'의 원작자이자 소설가인 정세랑 작가는 강수연 배우를 동경해온 80년대생 팬으로서 글을 썼다.

봉준호 감독과 설경구, 김현주 배우는 선배 강수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손편지에 담았다. 이외에도 생전 고인과 함께 작업했던 영화인들, 지인들이 보내온 코멘트가 추모집에 실렸다. 포토 아트북 형태로 기획된 추모집에는 고인의 영화 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출연작 및 촬영 현장의 미공개 스틸 등이 담겼다. 추모집은 이달 말 출간된다. 5월 6~9일 한국영상자료원과 메가박스 성수에서는 1주기 추모전 '강수연, 영화롭게 오랫동안'이 열린다. 영화 상영과 함께 특별 게스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추진위원회는 고인의 동생인 강수경 씨와 임권택 감독,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 배우 박종훈, 예지원 등 영화인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명예위원장은 임권택 감독이, 추진위원장은 김동호 이사장이 각각 맡았다. /연합뉴스

유해진·이제훈 영화 첫 호흡

‘모럴헤저드’ 투톱...부도 위기 소주회사 vs 글로벌 투자사 대립 그려

배우 유해진과 이제훈이 영화 '모럴헤저드'를 통해 처음으로 연기 호흡을 맞춘다고 배급사 쇼박스 7일 밝혔다.

'모럴헤저드'는 부도 위기에 처한 국내 1위 소주회사와 글로벌 투자사가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유해진은 주주 회사의 재무이사 표종욱 역을,

이제훈은 글로벌 투자사의 에이스 최인범 역을 맡았다.

'모럴헤저드'는 최윤진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기도 하다. 최 감독은 영화 '소녀'(2013)와 '오피스'(2014)의 각본과 제작을 맡은 바 있다.

/연합뉴스



유해진

이제훈

Advertisement for Seogwangju Nonghyup (서광주농협).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odern building and lists various services and products. Key services include NH Bank (NH 국민은행), NH Card (NH카드), and NH Life Insurance (NH생명보험). The ad also promotes a 'New Rich House' (NEW 리치하우스) real estate program and a 'Hot Sun' (햇살론) loan program.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in office and various branches is provided at the bottom.